



# 동선공간과의 관계로 본 미술관 전시공간의 유형 분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ypological Classification of Exhibition Area in Museum Regarding Circulation area

이한기\*/ Lee, Hahn-Gi

## Abstract

Museums after '70's shows remarkable development in public area as well as exhibition area. One of the main changes in recent museums is to extend the concept of circulation area, which regarded solely as a corridor connecting exhibition areas, as a multiple function area with various service facilities.

This study aims to outline a typological classification of exhibition area considering with circulation area in museum. On the base of two principal types of exhibition

area, that is room type vs open plan type, 30 representative worldwide museums are analyzed and four different types are identified as a result.

- 1) Loop type as a rotating structure of serial exhibition rooms
- 2) Cluster type which produce complicated circulation with rooms lied one upon another
- 3) Centrum type which is specially available to multi-story exhibition area
- 4) Loft type with maximum flexibility and accessibility

키워드 : 전시공간, 동선공간, 유형

## 1. 서론

미술관<sup>1)</sup>은 자연 환경, 장소성 등의 외재적 요인과 전시품, 운영전략 등과 같은 내재적 요인의 해결에서 기인되는 다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전시' 라는 절대적이며 공통적인 기능의 수용으로 인해 다른 건축물에 비하여 공간구성을 유형이라는 틀을 통해 관찰할 수 있는 일종의 규범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시대를 선도하는 전시공간을 구현하기 위한 재해석을 통해 지난 200여년간 지속적인 변화와 수정의 과정을 거치며 현재의 미술관 형식을 이루어내었다. 이러한 규범적 체계의 발전 양상은 현 상황에서도 이론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미술관 전시공간의 유형에 대한 연구는 여러 관점에서 다루어졌지만 그 갈래는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는 공간 상호간의 구성적 특성과 의미를 시대적 혹은 건축적, 문화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연구를 들 수 있다. 둘째는 전시공간 내에서 형성되는 동선의 형식을 유형적으로 파악하려는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전시공간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놓고 전자는 공간과 공간간의 관계를 규명해 보려는 태도이며 후자는 공간과 관람자의 움직임에 대한 관계를 해석해 보려는 자세로 보여진다.

이러한 두가지의 접근방법은 전시공간의 외적구조와 내적 구조를 다룬다는 점에 있어서는 상관성이 있으나 실질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각각의 연구가 상통하는 연관성을 갖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동선에 대한 의미를 전시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추상적, 국부적인 요소로 간주하는 기존의 국부적 해석에서 전시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물리적, 공간적인 요소로 해석의 시각을 전환시킴으로서 전시공간의 유형 분류를 시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동선공간은 단순히 전시공간을 연결하는 접근통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로비공간까지를 포함하는 영역을 의미한다. 이러한 범위 설정의 배경은 전시공간에 연계된 통로 및 로비공간의 역할이 단순한 이동의 기능에서 벗어나 미술관의 이미지를 전달하며 서비스기능을 수용하는 적극적인 공간으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때문이다.

또한 전시의 효과를 제고시키는 보조적 공간으로서의 인식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최근의 경향을 고려할 때 동선공간의 개념확장의 타당성을 엿볼 수 있다. 부분적으로 외부 전시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례 중에서 옥외공간을 주전시영역으로 취급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외부공간으로의 접근을 선택적인 상황으로 간주하여 동선공간의 범주에서 제외하여 분석 영역의 범위를 가급적 실내공간으로 국한시키고자 하였다. 아울러 전시공간 내에 포함된 관람통로는 공간으로서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경

\* 정회원, 대림전문대학 실내건축과 전임강사

1)본 논문에서 규정하는 미술관이라는 용어는 전시 성격에 따라 용어가 이원화되어있는 미술관과 박물관의 의미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로(route)로 간주하여 동선공간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20세기 중반 이 후에 건립된 외국의 미술계, 역사계 미술관을 중심으로 동선공간 및 전시공간의 구조를 특별로 분류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사례의 분석은 전시공간의 체계를 복합적으로 읽고자 하는 의도에서 규모가 중규모 이상인 미술관들 중에서 전문서적 및 잡지를 통해 여러 측면에서 빈번하게 논의의 대상으로 언급된 30개의 미술관을 선정하고 이중 26개를 표의 삼입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의의는 전시공간에 국한된 유형 분석의 한계를 벗어나 전시공간을 연결하는 동선공간을 포함하는 거시적 구조에서 나타나는 전시공간의 유형을 분석하므로써 미술관 계획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본 틀을 제시하는데 있다.

## 2. 전시공간과 동선공간의 의미 및 기존 연구

### 2.1 동선공간의 의미와 개념 변화

동선공간 영역을 전시공간과의 관계항으로 재조명함으로써 전시공간 유형을 체계화하려는 접근 방법의 시도는 현대의 미술관 경향에서 나타나는 다음의 몇가지 사항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첫째는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미술관에서는 전시 외에 다양한 공공서비스 기능을 지니게 되었다. 일례로 이미 1977년도에 ICOM에서 조사한 104개의 세계 주요 미술관에서 90%의 미술관이 뮤지엄 샵을 가지고 있으며, 65%가 식당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65%의 미술관에 전시를 겸하는 정원이나 휴게실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sup>2)</sup> 이에 따라 로비공간을 중심으로 파생되는 동선공간의 의미는 단순한 관람객 이동공간으로서의 의미에서 다양한 공공서비스 기능을 수용하므로써 그 이전보다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술관을 방문하는 목적은 단순히 전시를 보기 위한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미술관의 공간조직에서 이들 서비스기능을 보조하는 로비영역은 전시공간과의 접속관계를 보다 밀접하게 형성하는 주요한 매개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는 최근 많은 미술관들이 한정된 대지 내에서 필요한 공간을 충족시키기 위해 전시공간을 다층화(多層化)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미술관의 경우는 수직 동선체계의 형식이 각층에 배치된 전시공간 구성에 주요한 영향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전시공간을 분석하는 영향요인으로 동선공간을 주목해야할 대상으로 부각된다.

셋째로는 현대의 미술관 전시개념에서 나타나는 전시영역의 공간적 확장에 관련된 문제가 언급될 수 있다. 초기 미술관에서 명확하게 영역성을 갖는 '실(room)'의 개념은 현대의 미술관에서도 유효한 형식으로 유지되어온 전시공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의 미술관에서 '실'의 영역을 벗어난 공공공간 즉 로비 및 전시공간의 접근 공간을 단순한 전이공간으로 남기기 보다는 개론적 이미지를 전달하는 전위 전시영역으로 간주하려는 시도가 많은 호응을 받고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도들은 동선공간이 전시관람의 흥미를 제고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공간으로 재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하고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술관의 동선공간은 그 자체의 공간적 진화와 더불어 시대문화적 요구에 따른 기능의 개편, 전시공간의 다층화에 의한 건축공간의 수직적 확장, 전시에 대한 영역 개념의 확장이라는 새로운 요구들을 탄력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시공간구조의 형성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동선공간을 영향인자로서 다루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2.2 전시공간의 기존 유형연구 고찰

본 절에서는 미술관 전시공간에 대한 선행 유형연구를 개괄적으로 고찰하여 현재까지 통용되고 있는 유형의 범주를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에서의 고찰은 기존 해석의 한계를 비판하려는 의도보다는 공통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논리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 시도될 동선공간과의 상관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미술관의 전시공간에 대한 유형적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되어 왔다. 그 관점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최근의 연구자료<sup>3)</sup>를 토대로한 분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① 지리적 유형분류 ; Browne, M / 1965  
각 지역의 미술관들을 각각의 자연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성격을 구분할 수 있으나 전시 방법에 국한된 제한적 논리
- ② 동선에 따른 공간 형태적 유형분류 ; Glaeser, L / 1968  
미스(Mies van der Rohe)의 'Free plan' 형과 꼬르부제(Le Corbusier)의 'Spiral plan' 으로 대별되는 형식이 지속적으로 반복 적용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자유관람동선 형식과 강제순환 동선이라는 전시공간 내에 이루어지는 동선 형식에 따른 유형 구분 방법
- ③ 상징 개념적 공간 유형분류 ; Levin, M., D. / 1983  
사원 유형(Temple type)과 진열실 유형>Showroom type)으로 구분되는 분류의 관점이 미술관을 고전적인 사원, 궁전과 같이 심미적인 가치를 우선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상업적, 일상성에 가치를 둔 것인지에 대한 상징성과 조형 개념을 근거로 한 분류 방법
- ④ 공간 형식에 따른 유형분류 ; Searing, H. / 1986  
19세기에 시도된 두가지 대표적인 미술관 공간구성 형식인 연속적인 갤러리로 구성되는 Durand 유형(Durandesque type) 과 대공간 형식의 박람회 유형(Exposition type)을 제시하고 있다. 근, 현대의 시기동안 개발된 미술관의 다양한 공간형식, 채광방법은 당대의 경제적, 기술적 현실을 반영하며 변형되거나, 개별적 요구를 수렴하는 조건에서 수정된 상황이긴 하지만 그 기능적, 형식적인 가치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 분류 방법
- ⑤ 공간 구조에 따른 유형분류 ; Montaner, J. & Oliveras, J. / 1986

3)최윤경, 미술관 공간구조의 연대기적 유형학,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권6호 통권 92호, 1996.6

2)Public View, ICOM, 1986, p.33

근대 운동 이후에 다양하게 전개된 미술관 공간의 유형을 가변공간 유형 (Flexible space type) 과 개실,복도공간 유형(rooms and corridors type) 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관점은 전시공간의 유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어떤 물건을 전시하는가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택될 수 있는 유형적 분류

⑥ 공간구조의 연대기적 유형분류 : 최윤경 / 1996

최근 미술관의 공간구조를 4가지 유형으로 다소 세분화한 관점이다. 미술관의 원형적 사례인 블레(Boulee)의 미술관 계획안에서 제시된 복도식 연속공간과 팩스톤(Paxton)이 Crystal Palace에서 보여준 범용적 개방공간을 하나의 차원으로 간주하고 또 다른 사례로 듀란드(Durand)의 계획안에서 나타난 개실공간을 다른 차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두가지 차원과 함께 역시 듀란드의 계획안에서 제시된 중심성의 개념을 근현대의 미술관에서 수용하고자 하는 의도와 부정하려는 의도를 각각 다른 차원으로 보는 4원적 구조 - 단속공간구조/ 연속공간구조/ 중심성 부정/ 중심성 수용의 해석관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시공간 유형을 다룬 연구의 종합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지리적 유형분류와 ③ 상징 개념적 공간유형 분류의 체계는 해석의 주관성에 따라 다소 유형의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④ 공간 형식에 따른 유형분류, ⑤ 공간 구조에 따른 유형분류의 체계는 부분적인 변수가 내재해 있지만 전시공간의 원형적 유형을 개실형(room type) 과 개방형(Free plan type) 의 두가지 형식으로 간주하는 견해로 집약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⑥ 공간구조의 연대기적 유형분류의 관점은 이 두가지 원형적 유형을 바탕으로 중심성과 연대적 상황이라는 변수를 고려한 세분화된 체계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지협적인 해석으로 간주되어 온 ② 동선에 따른 공간 형태적 유형분류의 관점은 비록 전시공간 내에서의 발생될 수 있는 동선을 두가지의 상이한 형식으로 대별한 것이지만 ⑤ 공간구조에 따른 유형을 제시한 몬타나/올리바스(Montaner, J. & Oliveras)<sup>4)</sup>의 견해에 따르면 전시공간과 접촉되는 동선체계에 대한 문제는 거시적으로 볼 때 미술관 자체가 공공적 순환을 위한 공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개실/복도유형에서 순환의 과정이 강제적으로 제공될 경우에는 전시를 선택적 혹은 차별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전시공간간의 관계가 적절하게 형성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체 전시를 개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가변공간 유형 즉 개방형은 전시공간으로 접근하는 동선공간의 설정에 따라 전시공간간의 상호 연계성에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많은 미술관의 전시공간 유형이 개실/복도유형으로 선택되고 있는 상황은 전시품과 공간간의 관계에서 아직까지 전통적인 개실/복도형이 우세한 입지에 있음을 별도로 언급하고 있다.

4) Montaner, J. & Oliveras, J., The museum of the last generation, Academy Editions, 1986, p.15-17

이와 같은 지적은 동선을 선택적인 형식과 강제적인 형식의 이원적으로 구분한 그라서(Glaeser)의 견해와 유사하지만 동선의 역할을 전시공간 내에서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전시공간간의 관계로 해석한다는 점에서 좀더 융통성을 가진 견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전시공간의 유형을 동선공간과의 관계로 분석하려는 의도를 고려할 때 개실유형의 경우 각 전시실을 연결하는 동선공간이 강제적인 형식 즉 일원적인 체계로 제공되는 경우와 선택적인 형식 즉 다원적인 체계로 제공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 접근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도는 최근 미술관의 전시공간이 다양한 구조로 전개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유형분석의 기본 틀을 형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접근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3. 전시공간과 동선공간의 관계 유형분석

본 장에서는 2.2 항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동선공간을 고려한 전시공간의 공간구조를 특성별로 분류하여 26개의 사례<sup>5)</sup>에서 나타나는 유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대상사례를 대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시공간을 구분하는 두가지 원형적 유형인 개실형(room type)과 개방형(free plan type)으로 사례를 분석하면 전자의 유형이 20개 후자의 유형이 6개로 분류된다.

사례의 분류에서 전제되어야 할 한가지 사항은 개실형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로 설정하는가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입장에서 전시실의 크기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공간의 구조를 고정적인 벽체요소를 이용하여 실단위로 구분하려는 개념이 나타난 사례는 일단 개실형의 범주에 포함시켰으며 가변적인 벽체를 사용하는 개념을 기본 의도로 삼은 사례는 개방형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하였다.

여기에서 개실형의 사례들을 다시 동선공간과의 연관을 고려하여 전시공간으로의 두가지 접근형식인 일원적 접근형과 다원적 접근형<sup>6)</sup>으로 구분하면 <표1> 과 같이 개실형으로 일원적 접근형에 속하는 사례와 다원적 접근형에 속하는 사례로 각각 세분할 수 있다. 개방형의 경우는 모두 다원적 접근형에 포함된다.

<표1>에서 분석된 사례들을 동선공간으로 부터 연결되는 전시공간의 구조적 특성을 묶어 보면 <표2>와 같이 4가지의 기본형식과 기타 예외적인 형식으로 묶을 수 있는 복합형식으로 축약할 수 있으며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5) 사례대상은 30개의 미술관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나 개실유형에서 순회형의 Clore Gallery/London/1986/ J. Stirling, 집합형의 Ludwig Museum/K ln/1986/ P. Busmann, 구심형의 名古屋市美術館/나고야/1987/ 구로카와 키쇼, Musée d'Orsay/Paris/1986/Gae Aulenti 의 4개 사례는 지면의 한계로 삽입하지 못하였다.

6) 일원적 접근은 전시공간의 구성과 관계없이 강제적인 형식으로 진출입이 통제되어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다원적 접근은 2가지 경로 이상의 선택적 진출입이 가능한 형식으로 구분한 것이다. 따라서 전시공간에 대한 진입구와 출구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라 해도 그 접근이 강제적 동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례는 일원적 접근으로 간주하였다.

〈표1〉 동선공간과의 관계로 분석한 전시공간 분류

개 실 영 향	개 실 영 향	1 형 식				Neue Staatsgalerie/Stuttgart/ 1984/ J. Stirling MOCA/L.A./1986/A. Isozaki Museo d'arte contemporanea/ Prato/1987/ I.Gamberini			
		개 실 영 향	2 형 식				Neue Pinakothek/München/1981 A.F. von Branca Sainsbury Wing/London/1991/ R.Venturi Kunstmuseum/Bonn/1992/ A.Schultes		
			3 형 식				Guggenheim Museum/N.Y./ 1959/ F.LL.Wright MOMA/N.Y./1984/C.Pelli Carré d'art/Nîmes/1993/ N.Foster		
	개 실 영 향	개 실 영 향	3 형 식				Yale Center for British Art/ New Haven/1977/L.I.Kahn National Gallery of Art/ Washington D.C./1978/I.M.Pei High Museum of Art/Atlanta/ 1983/R.Meier		
			개 실 영 향	4 형 식				Museum für Moderne Kunst/ Frankfurt/1991/H.Hollein Holocaust Memorial Museum/ Washington D.C./1993/Pei, Cobb, Freed & Partners SFMOMA/San Francisco/1995/ M.Botta	
				5 형 식				Städtisches Museum Abteiberg/ Mönchengladbach/1982/ H.Hollein Museum für Kunsthandwerk/ Frankfurt/1985/R.Meier	
		개 실 영 향	개 실 영 향	6 형 식				Dallas Museum of Art/Dallas/ 1983/E.L.Barnes The Menil Collection Museum/ Houston/1987/R.Piano Museum of German History/ Berlin/1987-/A.Rossi	
				개 실 영 향	7 형 식				Neue Nationalgalerie/Berlin/1968 Mies von der Rohe Kimbell Art Museum/ Fort Worth /1972/L.I.Kahn Musée Archéologique/project/ 1984/H.Ciriani
					8 형 식				Centre Georges Pompidou/Paris /1977/R.Piano,R.Rogers Die Kunst und Ausstellungshalle der Bundesrepublik Deutschsch- land/Bonn/1992/G.Peichl Kunsthal/Rotterdam/1992/ R.Koolhaas

(표2) 미술관 전시공간의 유형분류

형식	특성	유형
1형식	일원적 접근형으로 전시공간이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유형	순회형
2형식	일원적 혹은 다원적 접근형으로 전시공간을 중첩시키는 유형	집합형
3형식	일원적 혹은 다원적 접근형으로 전시공간을 구심적 공간인 메이저 스페이스로 연결하는 유형	구심형
4형식	다원적 접근형으로 전시공간들이 동선공간에 인접되며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형	연접형
5형식	2가지 이상의 형식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유형	복합형식

① 순회형

개설/일원적 접근형에서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된 스티어링(Stirling)의 Neue Staatsgalerie, 이소자키(Isozaki)의 MOCA/L.A., 감베리니(Gamberini)의 Museo d'arte contemporanea 가 이 유형의 사례에 속한다.

이 유형은 미술관 자체가 복층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지만 전시공간의 레벨과 서비스공간들의 레벨을 구분하므로서 전시공간이 단일층에서 형성되는 공통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사례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이 유형은 전시공간 구성과 동선구조에서 각각 두가지의 형식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자의 전시공간 구성은 Neue Staatsgalerie, Museo d'arte contemporanea 와 같이 중앙에 외부공간을 두고 선형의 전시공간으로 에워싸는 형식과 MOCA/L.A. 와 같이 병치된 전시공간을 단순순회하는 형식의 구성 방법으로 나타난다.

동선구조의 형식은 MOCA/L.A.와 같이 입구공간으로 되돌아오는 방법과 Museo d'arte contemporanea 와 같이 입구와 출구가 구분되는 방식으로 대별할 수 있다.

Neue Staatsgalerie 와 같이 기존 미술관과 마지막 전시실에서 연결되는 형식은 특수한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입구공간으로 다시 연결되는 가능성을 의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MOCA/L.A.와 같은 형식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② 집합형

집합형은 전시공간의 커가 중첩되는 방법으로 구성된 형식을 그 특성으로 본다. 이 유형은 벤츄리(Venturi)의 SainsburyWing, 슈츠(Schultes)의 Kunstmuseum, 브랑카(Branca)의 Neue Pinakothek 가 이 유형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중 Sainsbury Wing과 Kunstmuseum은 전시공간을 단일층에 배치하고 있지만 Neue Pinakothek의 경우는 전시공간이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유형은 공간구조적 다양성이 예상될 수 있는 형식으로 볼 수 있다. 전시실의 중첩으로 인해 이 형식은 관람 동선이 혼재된 경로로 형성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순서대로 보여주는 전시에 유효한 형식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관람자가 임의로 전시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동선상의 가변성을 제공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순회형의 경우처럼 향후 접근해야 할 전시공간의 이미지를 관람자가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시키는 대안 유형이 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순회형은 미술관 초기 유형인 듀란드 계획안과 크렌츠(Leo von Klenze)의 Glyptothek 와 상통하는 역사적 맥락 선상에 있는 유형

인 반면 집합형은 주로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변형 형식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③ 구심형

구심형의 유형적 특성의 하나는 동선공간의 형태적 강조라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특성은 동선영역을 전시공간 중심부에 아트리움 형식으로 배치하여 이 공간으로 부터 각 전시공간을 연결하는 다층적 공간구조를 갖는다는 점이다.

이 유형의 역사적 근원은 쉹켈(Schinkel)의 Altes Museum에 두고 있다. 2개층으로 구성된 Altes Museum은 전시공간의 수직적 연계를 중앙 로툰다라는 공간형식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묶으려는 의지를 구체화한 원형적 사례이며 구심형의 미술관들은 그와 동일한 개념의 다양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sup>7)</sup> 이 유형에 속하는 미술관들은 라이트(Wright)의 Guggenheim Museum, 펠리(Pelli)의 뉴욕 MO MA, 포스터(Foster)의 Carré d'art, 칸(Kahn)의 Yale Center for British Art, 페이(Pei)의 National Gallery of Art, 마이어(Meier)의 High Museum of Art, 홀라인(Hollein)의 Museum für Moderne Kunst, 페이/콕/후리드(Pei/Cobb/Freed & Partners)의 Holocaust Memorial Museum, 보타(Botta)의 SFMOMA가 이 유형의 사례이다.

상기 미술관들에서 중앙부의 아트리움과 연결된 전시공간의 구성을 두가지의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아트리움 주변에 개방적 공간이나 동선공간을 제공하여 전시공간에 대한 접근을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공간형식이며, 다른 하나는 아트리움을 전시공간으로 에워싸므로서 전시공간의 접근을 일원적으로 순환시키는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선택적 접근을 의도하는 미술관의 경우는 다소 개방적인 전시공간을 기본 골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후자의 사례들인 Guggenheim Museum, 뉴욕 MOMA, Carré d'art의 경우 전시공간의 형식에만 국한한다면 <순회형>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접근 동선공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다층으로 구성된 전시공간을 아트리움으로 묶으려는 구심구조의 특성이 부각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④ 연접형

연접형의 특성은 전시공간에 대한 동선공간의 배려가 동일한 조건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인접되므로서 두 공간이 상호접속관계의 공간구조를 형성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은 전시공간에 대한 관람의 선택성이 다른 유형에 비해 크게 부여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유형에서 전시공간과 동선공간의 접속관계는 두가지 경우로 나타난다. 하나는 개방형에 속하는 미술관들에서 전시공간이 벽체로 구분된 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선공간과 전시공간이 암시적인 경계로 구분되며 자유로운 접근 구조가 조성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전시공간이 가변적인 <실>의 성격으로 분할되며 각 <실>에 대한 동선공간의 관계가 다층적인 접근 구조로 조성된 형식이다.

7)Helen Searing. "The Development of a Museum Typology", Stephen S. (Ed) Building the New Museum, The Architectural League of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86

개설들이 동선공간에 연결된 사례는 피아노(Piano)의 The Menil Collection Museum, 로시(Rossi)의 Museum of German History이며 개방형의 사례로는 미스의 Neue Nationalgalerie, 칸의 Kimbell Art Museum, 피아노/로저스의 Centre Georges Pompidou, 시리아니(Ciriani)의 Musée Archéologique(안), 반스(Barnes)의 Dallas Museum of Art, 페킬(Peichl)의 Die Kunst und Ausstellungshall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램 쿨하스(Rem Koolhaas)의 Kunsthal이 이 유형에 속한다.

Museum of German History와 Kunsthal과 같이 복층의 전시공간을 동선공간으로 묶는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경우 구심형의 아트리움과 구별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적 차이는 구심형의 동선공간<sup>8)</sup>은 공간확산적인 반면 연결형의 동선공간은 동선집약적이라는 점에서 이 유형의 특성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 ⑤ 복합형식

복합형은 전시, 동선공간의 유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두가지 이상의 유형적 특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사례를 일괄적으로 묶는 것으로 그 구성상의 특성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독립된 유형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기본유형을 복합적으로 구사한 사례는 마이어의 Museum für Kunsthandwerk 와 홀라인의 St dtisches Museum Abteiberg 가 복합형에 속한다.

전자의 사례는 동선공간을 전시공간에 인접시키며 전시공간에 대한 접근을 선택적으로 유도하는 의도를 기본 개념으로 삼고 있는 점은 연결형에 속하는 형식이지만, 중앙부의 마당을 동선공간으로 연결하므로써 전체공간을 순차적으로 이동시키는 순회형의 형식을 복합적으로 구성한 의도를 보이고 있다.

홀라인의 Städtisches Museum Abteiberg 의 경우는 집합형 기본공간구조에 연결형 전시공간을 복합적으로 사용한 사례이다. 각 층마다 공간의 형식이 다르지만 가장 주요한 레벨에서 혼재적인 동선체계의 특성을 갖는 집합형 전시공간과 연결형의 임의 선택적 동선을 병치시킨 사례로 볼 수 있다.

### 4. 결론

미술관의 전시는 이제 전시공간에 국한된 문제만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이미 서구의 미술관에서 전시공간과의 연계성이 상당히 밀접한 동선공간을 단순한 통로공간 이상의 가능성을 부여하려는 개념은 기존의 <실> 중심 전시공간의 틀에 대응하는 개방형 미술관의 구체적인 발전과 시간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 한가지 70년대 이후의 미술관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변화로 로비비공간에 담기는 서비스 기능의 확대를 들 수 있다. 따라서 로비의

8) Holocaust Memorial Museum 과 Musée d'Orsay 의 경우 평면상으로는 연결형과 같이 보이지만 중앙에 선형의 대공간을 아트리움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연결형의 동선공간에 대한 근본 개념을 동선공간과 전시공간의 물리적인 연결구조의 관점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의 전시공간 내에서 복층을 형성하는 변화와 전체적인 공간구조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규모와 형태에 대한 배려 및 기능성에 대한 비중이 급속하게 증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현대의 미술관들이 전시공간과 관계된 동선공간에 대한 중요성을 그 어느때 보다도 크게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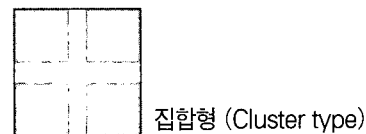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형식의 미술관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전시공간과 그 공간을 접속하는 동선공간간의 관계를 앞 장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순회형, 집합형, 구심형, 연결형으로 나타나는 4가지의 기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기본유형의 특성은 도식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도식에서 회색부분은 전시공간, 먹색부분은 동선공간을 의미한다.



이 유형은 역사적으로 미술관의 전시공간 구성에서 가장 전형적인 구조의 하나로 적용되어왔다. 전시공간은 별도의 통로공간이 없이 연속적으로 전개되어 강제적 동선으로 구성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층의 전시공간 구성에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단층 구조에서 적용의 효과가 큰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중앙의 외부공간은 대지 규모 및 환경 맥락을 고려하여 외부공간을 조성하거나 삭제하는 방법 등 다양한 처리가 예상될 수 있다.

이 유형은 MOCA/LA 에서 처럼 동선공간 양측으로 각각 순회하는 전시공간을 구성하므로써 전시영역의 성격을 구분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유형과 비교할 때 관람 선택의 가변성이 적은 대신 동선상에 혼돈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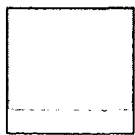
이 유형은 순회형(Loop type)과 유사하게 많은 <실>의 구분을 필요로 하는 미술관에서 나타난다. 공간 개념은 순회형의 소규모 단위 공간의 커가 중첩되는 형식으로 재구성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공간의 중첩으로 인해 관람동선이 복잡하게 얽히는 문제가 있지만 순회형에 비해 개실 운영의 융통성과 선택적 관람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유형을 기본골격으로 연결형을 동시에 활용한 St dtisches Museum Abteiberg 과 같은 경우 다양성 있는 공간 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유형이다.



구심형은 전시공간 중심부에 아트리움의 형식을 도입하여 동선공간의 형태적, 시간적 상징성을 강조하며 전시공간으로의 접근을 유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유형의 기준층 평면은 순회형 혹은 연결형과 유사하게 취급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층구

조적 전시공간의 필요라는 현실적 문제를 공간적, 시간적으로 단절되지 않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시도된 사례들을 통해 이 유형의 차별성을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은 대부분이 다층의 전시공간을 가진 사례에서 나타난다. 이 유형은 중심부의 동선공간을 단순한 상징적 공간에서 복합기능적 목적공간으로 그 역할을 새롭게 부여하므로써 미술관 전시에 운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연접형 (Loft type)

개실형 및 개방형의 전시공간에서 흔히 나타나는 이 유형의 특성은 동선공간에 의해 연결되는 전시공간의 접근성이 동등하며 자유롭게 제공되는 공간구조를 갖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개실형의 경우에는 각 전시공간에 대한 선택적 관람이 가능하며 개방형의 경우에는 가변성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관람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많은 미술관에서 적용하는 형식라 할 수 있다. 사례는 단일층의 전시공간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Museum of German History의 경우처럼 부분적인 복층구조에서도 같은 유형이 구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상으로 동선공간을 고려한 전시공간의 유형은 상기의 4가지의 기본 유형으로 그 특성을 요약할 수 있다.

미술관을 처음 계획할 때 어떤 형식의 공간으로 부터 출발할 것인가의 문제는 대지조건, 전시공간의 분류, 전시품의 종류 등 여러 가지 외부적인 영향인자가 매우 중요한 결정요소로 개입한다. 그렇지만 본 연구를 통해 분석한 기본 유형의 특성과 적용사례를 근거로 한다면 초기계획에서 미술관의 골격 형성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각 미술관마다 기능과 의도에서 다소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공간의 구성방식도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된다는 점에서 위의 4가지 유형은 절대가치 보다는 상대가치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1. 서상우, 박물관/미술관 총서 II, 기문당, 1995
2. 최윤경, 미술관 공간구조의 연대기적 유형학,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권6호 통권 92호, 1996.6
3. GA Document 31, A.D.A. Edita Tokyo, 1991
4. Geoff Matthews, Museums and Art Galleries, Butterworth Architecture, 1991
5. Helen Searing, "The Development of a Museum Typology", Stephen S. (Ed) Building/ the New Museum,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86
6. Laurence Allégret: Musées 2, Editions du Moniteur, 1992
7. Michael Brown, The Museum Interior, Architectural Book Publishing Co., Inc. 1982
8. Manfred Lehbruck, Museum Architecture, Museum volXXXVI,

UNESCO, 1974

9. Montaner J. & Oliveras J., The museum of the last generation, Academy Editions, 1986
10. Montaner J., New Museums, Architecture Design and Technology Press, 1990
11. Montaner J., Museums for the new century, Editorial Gustavo Gili, S.A., 1995
12. Museums Architektur 1985, Hans Christians Verlag, Hamburg, 1985
13. Museums for a New Century, A Report of the Commission on Museum for a new century, 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s, 1984
14. New Museums, Architectural Design, 1991
15. Public View, ICOM, 1986

〈접수 : 1997. 9. 6〉